



글쓴이 · 김 재 황  
사 진 · 자연보존협회

사라져가는 희귀식물 <14>

## 섬노루귀

- 학명 *Cymbidium kanran*  
Makino

**보**에 피는 꽃들은 아름다운 게 많다. 그 중에서도 귀엽기로는 노루귀를 따를 게 드물 성 싶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뿌리로부터 돌아나는 잎이 노루귀의 모습인데다가, 긴 털까지 돌아나 있어서 사랑스럽기 그지 없다.

하지만 많은 노루귀 종류 중에서도 섬노루귀는, 부모가 막내를 편애하는 것만큼이나, 더욱 끈끈한 정을 느끼게 한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섬노루귀는 다른 노루귀와는 달리, 멀리 떨어진 울릉도에서만 자란다. 쉽게 만날 수가 없다는 점이 안쓰럽기도 하려니와, 그 외로움 때문인지 온 몸에 한층 길게 돌아난 솜털이 보는 이로 하여금 가련함을 안게 한다.

울릉도는 섬이지만, 자연이 잘 살아 있어서 아름다운 곳이다. 제일 높은 봉우리는 해발 9백84m인 성인봉이다. 그리고 여러 봉우리들이 나리분지를 둘러싸고 있다. 울창한 울릉도의 산 속에는 폭포도 있고, 곳곳에 천연기념물 군락지가 있다.

그 곳 서면 소재지인 남양에서는 비파산이 우뚝하다. 척 보아서 국수밭이 늘어져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해서 「국수산」이라고도 부른다.

옛날 우산국의 우해왕은 멀리 대마도에까지 가서 아름다운 풍미녀를 데려다가 왕후로 삼았다. 우해왕의 풍미녀에 대한 사랑이 어찌나 지극했던지, 오직 그녀의 환심을 사는 일에만 온 정신을 쏟았다. 풍미녀는 그러한 왕을 믿고,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다. 우해왕은 그녀의 극에 달한 사치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배를 타고 신라에까지 가서 노략질을 하기도 했다.

풍미녀가 아이를 갖게 되자, 우해왕의 기쁨은 하늘에 닿았다. 왕은 왕비가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었다. 그 때문에 우산국의 국력은 건잡을 수 없이 기울어 가기만 했다. 그러나 왕비는 별님이라는 공주를 낳고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우해왕의 슬픔이 어떠하였겠는가? 왕은 땅을 치고 통곡했다. 그리고는, 뒷산에 병풍을 치고 백일제를 준비하도록 명령했다. 제사가 계속되는 백일동안, 왕은 열두 시녀로 하여금 비파를 치도록 했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은 백일제를 올린 그 산을 가리켜 「비파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그 풍미녀의 넋이 다시 살아서 섬노루귀가 되었는가 싶다. 아름답기 이를 데 없는 그 꽃이, 아름다웠다는 왕비의 모습을 짐작하게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꽃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꽃잎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풍미녀의 허망한 사치를 연상하게 한다. 노루귀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꽃잎같이 보이는 게 모두 꽃받침이다. 꽃받침은 6개에서 8개이고, 많은 수술과 암술을 감싸고 있다.

섬노루귀는 뿌리줄기가 비스듬히 선다. 키는 20cm 쯤 자란다. 줄기에 마디가 많으며 검은 빛의 잔뿌리가 뻗는다. 잎은 뿌리에서 돌아서 사방으로 퍼지게 된다. 잎의 모양 또한 아름답다. 잎자루가 길어서 가련미가 있고, 털이 많이 돌아서 귀염성이 보이며 그 잎이 3개의 길둥근꼴로 갈라져서 정다움을 나타낸다.

4월에 피는 꽃은, 흰빛이다. 순결함이 엿보인다. 잎이 나오기 전에 꽃자루가 돌아난다. 꽃자루 끝에 한 개씩 달리는 꽃이 우아함을 뽐낸다. 굳이 풍미녀의 전설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기에 조금의 부족함이 없을 성싶다.

열매는 수과(瘦果)인데, 물레의 가락과 비슷한 모양이다. 털은 보이지가 않으나, 밑에 총포(總苞)를 달고 있다. △